

책읽기, 낯은 새로움

강위석

중앙일보 논설고문

책을 읽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다. 잠자는 사람의 숨 소리, 특히 코 고는 소리에는 리듬이 있다. 책을 읽을 때도 적어도 숨은 쉰다. 도서관 같은 데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면 그건 아름다운 음악이다. 그 한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있다가, 필연인지 우연인지, 그 방에 앉아 책을 읽는 모든 독서자들의 호흡이 연주하는 극히 조응한 합창을 듣게 되는 일이 있다. 책을 읽는 것은 평화롭다. 잠자는 사람의 숨소리처럼 책 읽는 사람의 숨소리는 평화의 음악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책은 이 말에서 애통과 위로를 합친 것에 비유될 만하다. 독서의 총화(總和)는 온 몸에 배어드는 슬픔이다. 슬픔은 독서의 피할 길 없는 포즈이자 결과다. 당신이 애통하고 있을 때 가장 믿음직한 가까운 사람한테 위로를 받았다 하자. 독서는 그런 때와 견줄 만한 가장 순수한 문화적 슬픔을 준다. 꼭 다 읽을 만한 책이라서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몰려오는 밀물같은 슬픔은 상처이자 기쁨이다.

시간이 지루해서 그 지루함을 더 지루한 것으로 다스리려고 책을 펴들었는데, 어느새 잠이 드는 일이 많다. 나이가 드니까 더욱 자주 그렇게 된다. 이런 때 잠과 독서는 밀착한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시간의 경계를 식별하지 못한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책을 읽는 것도 꿈을 꾸는 일이다. 비디오나 컴퓨터 게임은 머리 속에 꿈꿀 자리를 비워 주지 못한다. 단풍을 바라보고 있거나 눈오는 들판을 바라볼 때보다도 책을 읽고 있을 때의 머리 속에 꿈꿀 자리가 더 넓다.

대학입시를 위하여 읽는 수험준비 독서조차도 저주스럽게 따분할 테지만 역시 축복이기도 하다. 독서라는 행위는 예술행위처럼 그 자체가 행위이면서 상징이다. 읽는 내용이 별로 문제될 것 없다. 콩 농사를 짓든 벼 농사를 짓든 농사 짓는 것이 노동이라면, 음란물을 읽든 기술서적을 읽든, 읽음으로써 시간 위를 한동안 떠내려감, 그것이 독서다. 독서는 철저하게 하나의 양식(樣式)이다.

책과 그것을 읽는 사람, 이 두가지가 시간 위에서 만드는 독서라는 행위예술은 약 3천년 전 문자가 처음 생기고, 약 2천년 전 종이와 인쇄가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인류문화의 가장 걸출한 양식이다. 책 안에 들어 있는 정보와 교양의 분량이나 품질이야 때와 곳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차라리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

독서는 담배 한 대를 피우거나 한 잔 술을 마시는 것처럼 실인즉은 휴식이다. 그래서 독서는 적극적 행위가 아니다. 등산보다는 산보에 가까운 휴식이다. 휴식으로서의 독서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야 독서를 자기의 취미라고 비로소 말할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읽어가다가 어느 한 줄을 만나면 그것을 읽고는 상상에 빠진다. 그러고는 미아(迷兒)가 되는 것이다. 책은 우주선이 해줄 수 없는 일을 해준다. 그때 당신은 아마 퇴근 시간의 경인전철 속에서 그 한 줄을 만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무엇을 읽고 있었든가 하는 따위는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책은 앉아서 읽어도 좋지만 서서, 또는 누워서 읽어도 좋다. (이 점에서 책읽기는 포르노의 한 장면 같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판형이 작고 종이가 얇고 인쇄가 또렷한 책이다.

나는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책벌레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책 읽는 일이 재미있어진다. 책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섭섭할 테지만 나는 새 책을 사는 것보다 읽었던 책을 또 꺼내 읽곤 하는 일이 많다. 여러번 읽었음에 틀림없을 텐데도 전혀 읽은 기억이 안날 때, 전에는 내 초라한 기억력을 원망했지만 요새는 둔한 머리 때문에 맛보는 낯은 것의 완전한 새로움에 놀라는 것이 즐겁다. 이런 즐거움은 혹 여태까지 모르고 지났던 것을 새로 발견한데서 생기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표지 인터뷰 2 비어 있는 한국외교사의 실증연구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펄먼 구대열 교수

확대경 3 창립 30주년 맞은 민족문화추진회

긴급진단 4 또다시 고개 드는 가격할인 경쟁-한기호

초점 6 대학 출판학과, 제대로 기능하나

특집/흔들리는 출판물, 어지러운 독자 8 철학은 없고 요령만 가득한 처세서들

9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상식책들

10 붓물처럼 쏟아지는 통속 정치소설

11 영화인기에 편승한 '영화소설'들

12 이성적 사고 막는 '점술'과 '예언'-최태원

기획 시리즈 13 대중문화 시대를 이끄는 책 6-김미도

얼굴 14 창업 50주년 맞은 현암사 조상원 회장

출판계 소식 15 제5회 '한국만화문화상' 시상식·외

책과 사상 16 '계몽'의 신화에 담긴 퇴보의 씨앗-김문환

확대 서평 17 진보철학자들이 담아낸 한국사상의 핵심-유초하

화제의 신간 18 에드워드 윌슨의 《생명의 다양성》-강찬수

신간읽기 19 클라이브 폰팅의 《녹색 세계사》

특선 에세이 20 책 같은 도시 -황기원

21 배낭 속의 단편 -김영도

22 젊은 문학독자를 위하여 -유종호

종합 서평 23 송기원·오정희·호영송의 작품집을 읽고-김만수

서평 24 송기호 《발해정치사 연구》-한규철

김학준 《북한 50년사》-최완규

25 김정계 외 《중국정치론》-현재호

송해룡 《매스텔레마틱론》-김승현

26 호킹 《시간의 역사·2》-최용준

바하 《코페르니쿠스에서 아인슈타인까지》-김정훈

27 이선영 《리얼리즘을 넘어서》-신철하

이 책 그 사람 28 《크리스탈 속의 도요새》 펄먼 최문희씨

《한국인이 만든 일본 국보》 펄먼 홍윤기씨

29 《에펠탑에 옷을 입히며》 펄먼 이미경씨

《테마가 있는 생활한자》 펄먼 김대현씨

세계의 출판 30 노장 희곡작가 아더 밀러의 첫소설·외

32 신간안내/42 시집 리뷰/44 새로 나온 책